

“한마음 대화법 알고 나니 아이들 달라보여요”

최근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학교폭력·왕따 문제로 학생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시급히 나서고 있다.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함께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1월 9~13일 겨울방학을 맞아 안양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교실의 행복-한나무인성교육 교사연수’ (이하 교실의 행복)를 실시했다. ‘교실의 행복’은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학생지도 및 학급운영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사연수에서는 ‘마음’을 주제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생각이요.” “사랑이요.”

강연자의 질문에 교사들은 어린이들 마냥 신나서 대답한다. 강연자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어느 학구파 학생들보다 더 열성적이었다.

“마음은 마음 내기에 따라 다르며, 마음은 쓰는 대로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도 함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김인옥(본원초) 교사가 직접 교육현장에서 적용했던 마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자, 한마음과학원 ‘교실의 행복’에 참가한 13명의 교사들 눈빛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김 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나를 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성은 결국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 5일간 매일 6시간씩 진행된 ‘교실의 행복’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고, 활용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교실의 행복’은 ▷문제해는 없다 ▷다르게 세상보기 ▷문제관점에서 벗어나기 ▷생명으로 가득한 나 ▷나 다르게 보기 ▷내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생의 신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 ▷마음의 원리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한마음 대화법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힘 ▷변화하는 나 ▷행복한 교실 만들기 등 주제강의를 비롯해 수업연서, 인성교육실습, 그룹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교육·과학·사회복지·인문학 전문가들이 나서며, 인성교육실습 시간을 통해서도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시켰던 인성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교사가 학생지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해 토론, 교육연구 등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은 강연자가 제시한 상황에 맞춰 자신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한마음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행복’에 참가한 교사들의 모습

지도할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인성교육실습인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한마음 대화법’에서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들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혼나는 것이 두려워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거짓말 일삼는다. 이때 이런 아이들의 본질적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결국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문미향(수리고) 교사는 “교사가 이상에서 사로잡히면 학생의 진심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한마음과학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권위만 내세워 학생들의 문제를 바로보지 못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실의 행복’은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 등을 동료 교사들과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정규열 한마음과학원 팀원은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진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다”

교사가 먼저 마음 열어야 학생들도 신뢰 갖고 마음 열여 현직 교사들 정보공유 통해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활용

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규열 씨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과제를 받은 후, 다음 날 그룹토의 시간을 통해 과제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 간 정보공유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마음과학원의 ‘교실의 행복’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교사연수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진행된 ‘한나무 인성교육’이 모태이다.

‘교실의 행복’은 교사인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교실이 행복해진다”는 모토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스스로에게 갖춰진 내면의 힘을 자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교실의 행복’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

르쳐기보다, 교사 자신부터 삶과 마음을 돌아보길 권유하고 있다.

정규열 씨는 “교사들이 진실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말을 긍정하게 된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대수용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미향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실의 행복’은 마음이란 주제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어 신뢰성을 지닌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돌아가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추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사는 “현대의 청소년들은 오로지 경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자신부터 바뀌어 아이들의 지친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한마음과학원은 ‘교실의 행복’ 프로그램을 공교육 현장에서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정규열 씨는 “현재 대안학교 등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은 소통하며 치유하는 것”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현재 교육현실의 위기가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여한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의 교육현실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래 교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문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흡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의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지위를 통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심을 더 많이 두었다. 이런 기성세대의 사고방식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착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을 일삼는 것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위적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던 유경험자 80% 이상이다”며 “초등학교 당시 자신의 당했던 분노가 폭발돼,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타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교수는 이번 교수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을 주제로 강연했다. 우리가 마음의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에 지배된다. 김영래 교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형성이 자연스레 형성됐다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래 교수는 자신도 유년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유년시절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 교수는 자연스레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으며 동시에 친구들의 시기를 사게 된 것이다.

김영래 교수는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점차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삶의 일부에 당시 내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한마음 인성교육 프로그램



부정적 마음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 지배돼 버려

좋지 않은 기억 빨리 털어내고

자신부터 먼저 마음을 열어야

램을 강의하면서 내 자신이 가장 많이 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치유와 소통이다.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상대로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김영래 교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려서부터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응어리 져기 때문이다. 좋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털어버려야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 교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드러내 기분이 좋다. 하지만 현재 교육이 불교적인 장소에서 이뤄져 이를 꺼려하는 교사들도 많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

변백주 지음 | 352면 | 15,000원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화해

<화> 이후 9년, 틱낫한 스님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언제 어디서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본격 생활명상 입문서! 숨 쉬고 걷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상이 곧 명상

책 콘필드 지음 | 추선휘 옮김 | 156면 | 12,000원

도법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도법 스님이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부처님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무비 스님 지음 | 168면 | 9,000원